

대통령에 대한 언어적 특별 대우*
— 대통령 전용말 또는 21세기 새 궁중말 —

이정복**

- I. 머리말
- II. 대통령 전용말의 목록과 유형
 - 1. 대통령 전용말의 목록
 - 2. 대통령 전용말의 유형
- III. 대통령 전용말의 쓰임 실태
 - 1. 주체에 따른 쓰임
 - 2. 맥락에 따른 쓰임
 - 3. 시대에 따른 쓰임
- IV. 대통령 전용말의 기능과 문제점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통령의 말이나 대통령에 대한 말을 사회언어학적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통령과 관련된 언어적 특별 대우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곧 ‘대통령 전용말’ 또는 ‘21세기 새 궁중말’의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대통령을 일반인과 달리 대우함으로써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를 비판적 관점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교수

에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대통령 전용말의 목록을 제시한 후 ‘사용 시기, 전용성의 정도, 사용 방식 및 방향’의 측면에서 표현의 유형을 나누어 보았다. 3장에서는 대통령 전용말의 쓰임 실태를 ‘주체, 맥락, 시대’의 세 가지에 따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대통령 전용말의 기능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현재 사용되는 대통령 전용말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통령 전용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언어적 특별 대우, 대통령 전용말, 궁중말

I. 머리말

이 연구는 대통령의 말이나 대통령에 대한 말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대통령과 관련된 언어적 특별 대우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쓰는 말, 대통령에게 쓰는 말,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 등 대통령의 특별한 지위와 관련된 특수한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고 유형을 파악한다. 이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대통령을 보통 사람과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를 비판적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언어가 권력의 드러냄과 드높임을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언어와 사회 또는 언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우리말의 구체적인 사용 모습의 한 가지를 새롭게 보고하고, 말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실질적인 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은 위계 구조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최고 권력자임이 분명하며, 그러한 절대적 지위는 왕조 시대에 왕이 누렸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궁중에서 왕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어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우하였고, 그러한 ‘궁중말’은 일반인들에게 전파되어 왕과 관련된 말에서는 법과 같이 엄격하게 지켜졌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권위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권력어(權力語)로서 ‘대통령 전용(專用)말’¹⁾ 또는 ‘21세기 새 궁중말’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최고 권력을 가진 두 주체가 언어 사용 면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기본 자료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청와대 누리집 게시글이다. 이 사이트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일정, 구체적인 활동 내용, 각종 연설문과 보도 자료, 비서관들의 주장이나 정책 설명, 일반 국민들의 게시글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²⁾ 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통하여 대통령 전용말의 쓰임을 찾아서 쓰임 보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A4 용

1) ‘대통령 전용말’은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하여 쓰는 특수한 표현으로서, 대통령이 쓰는 말과 대통령에게 쓰는 말, 대통령과 관련하여 쓰는 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과거 임금의 신하들에게 스스로를 ‘과인’이나 ‘잡’으로 가리키고, 신하는 임금을 향하여 ‘전하’나 ‘폐하’로 불렀던 것을 ‘궁중말’로 묶어 다루는 것과 같다.

2)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누리집 내용이 인터넷에서 모두 지워졌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앞 정부의 활동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주소를 일부 바꿔서라도 누리집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이정복 2008:29). 이와 관련하여 한 누리꾼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하여 “예전 청와대 홈페이지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역사나 다른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홈페이지도 사라지다니 좀 의아하다. 어디서 좀 볼 수 없나? 만약 예전 홈페이지가 있었다면 13년만에 바뀌었다는 잘못된 발표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가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media.hangulo.net/412)라고 적었다.

지로 약 1,900장 크기이다. 검색할 대통령 전용말은 책자 형식의 관련 문헌을 통하여 먼저 찾아내고, 검색된 게시글 자료를 통하여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역대 정권의 대통령 연설문, 담화문, 어록 등을 정부에서 책으로 간행한 경우도 있고, 대통령의 철학이나 건강, 사생활에 관련된 일반 참고문헌도 많이 나와 있어서 대통령 전용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함께 각종 신문, 잡지, 방송의 보도 기사를 추가 기본 자료로 수집하여 활용한다. 청와대 누리집에는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들의 언어 사용 자료는 많지만 언론 자료는 많지 않다. 대통령 전용말의 승인과 확산 또는 폐기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 기사 자료도 기본 자료로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기사 자료의 수집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미디어가온>(www.kinds.or.kr)과 <네이버>의 기사 검색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필요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기와 크게 대비되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에 대한 말의 쓰임이 시대적으로 모습을 어떻게 달리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대통령 자신의 말이나 대통령에 대한 주변인들의 말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앞선 연구로는 이정복(1997, 2001가, 2001나, 2003), 박경현(2003) 등의 몇 편이 있다. 대통령의 말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전통 왕조 시대에 궁중에서 왕과 관련하여 쓰인 궁중말에 관심을 보인 연구도 있다. 예를 들면, 황경환(1963), 김종훈(1969), 김용숙(1994) 등이 그것이다.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말의 쓰임을 비판한 글도 있는데, 이태숙(1992:59-62)은 언론에서 대통령과 관련하여 잘못 쓰는 말들이 많음을 비판하였다. 그 보기로 ‘대권’(大權), ‘통치권’(統治權), ‘낙점’(落點) 등을 들었다. 앞선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나름대로 대통령 관련 표현을 보고하고 분석한 의의가 있지만 부분적 사실을 중심으로 언급한 것이라서 대

통령 전용말의 전모를 밝히고, 언어 사용의 밑에 숨어 있는 화자들의 의도나 전략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논문의 본론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다음 2장에서는 대통령 전용말의 목록을 제시하고, ‘사용 시기, 전용성(專用性)의 정도, 사용 방식 및 방향’의 면에서 유형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다. 3장에서는 대통령 전용말의 구체적 쓰임 실태를 ‘주체, 맥락, 시대’의 세 가지에 따라 살펴본다. 4장에서는 대통령 전용말의 기능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현재의 대통령 전용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II. 대통령 전용말의 목록과 유형

1. 대통령 전용말의 목록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과 관련하여 써 온 특별한 표현들 가운데서 일부는 21세기에도 계속 쓰이고 있는 반면 일부는 정권이 바뀔에 따라 사라지거나 변화된 경우도 있다.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인 ‘통수권자’, ‘국가원수’, ‘정상’과 같은 말은 여전히 쓰인다. 이와 달리 ‘하사’(下賜) 또는 ‘하사품’(下賜品)은 현재에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말이다. ‘각하’(閣下)의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부터 공식적으로 쓰임이 중지되고 대신 ‘대통령님’을 쓰고 있지만 외교적 행사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 전용말로 쓰이는 표현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겠다.³⁾ 21세기 현재에 쓰이는 것

3) 목록이 차지하는 분량이 좀 많지만 각 표현의 존재와 쓰임 실태를 구체적

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부터 쓰이던 과거의 주요 표현까지 포함한다.⁴⁾ 대통령 전용말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이 쓰는 말, 대통령에게 쓰는 말, 대통령과 관련하여 쓰는 말 가운데서 “① 처음부터 대통령(또는 왕)을 위해 만들어졌거나 대통령과 관련되어 주로 쓰는 말, ②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는 일상용어면서 대통령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쓰는 말”로 정하였다. 각각의 용례와 관련 표현을 분석 자료에서 찾아 제시하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뜻과 용례를 괄호 안에 넣어 함께 보임으로써 이해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다. 용례와 관련 표현은 우선적으로 청와대 누리집의 게시글 자료에서 찾아 쓰고, 노무현 대통령 때 잘 쓰지 않아서 보기가 없는 경우는 언론 기사나 문헌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1) 대통령 전용말의 목록과 용례

가신(家臣): (정승의 집에 딸려 있으면서 그들을 섬기던 사람.) ◇ 비자금 측근실세 가신(家臣) 비선권력 등 퇴행적 정치용어들이 사라졌다. ㉠ 관련 표현: 가신 그룹, 가신 정치
각하(閣下): (특정한 고급 관료에 대한 경칭. 『대통령 각하/의장 각하.』) ◇ 지금 노무현대통령각하 는 용광로에서 벌건 쇳물이 되

으로 확인하는 것이 논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록으로 넘기지 않고 여기에 두고자 한다.

- 4) 대통령 전용말에는 낱말, 구, 문장, 담화 등의 여러 가지 차원의 요소들이 있지만 낱말이나 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낱말 또는 구 차원의 표현들을 중심으로 목록을 제시하겠다. 대통령 전용말의 일부는 청와대에서 공식적 자리에서 본래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비유적·비판적으로 쓴 것도 있고, 일반 국민들이 개인적·일회적으로 쓴 것도 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2.2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 5) ‘각하’는 각국의 대통령, 총독, 총리, 공산당 서기장에게 쓰였고, ‘전하’는 ‘요르단 국왕’에게, ‘폐하’는 ‘덴마크 여왕’, ‘스페인 국왕’, ‘영국 여왕’, ‘일본 왕(천황)’에게 쓰였다. ‘요르단 국왕’의 경우 ‘전하’와 ‘폐하’가 혼용되었다. 이와 관련된 앞선 연구로는 이정복(2003:225~226)을 참조할 수 있다.

- 고 있습니다. ㉠ 관련 표현: 각하 내외(분), 노무현 (대통령) 각하, 대통령 각하(님), 서기장 각하, 총독 각하, 총리 각하, 국왕 전하, 국왕, 폐하, 여왕 폐하, 천황 폐하
- 간신(奸臣): (육사신의 하나. 간사한 신하를 이른다.) ◇ “노무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간신이 아닌 충신이 되고자 한다” ㉠ 관련 표현: 간신배, 간신 모리배
- 간청(懇請): (간절히 청함. 또는 그런 청.) ◇ 해마다 8월에 여러분을 모셨는데 올해는 6월 보훈의 달에 모시자고 보훈처장이 간청해서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 감축(感祝): (경사스러운 일을 함께 감사하고 축하함. 또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축복하고 싶을 만큼 매우 고맙게 여김.) ◇ 대통령 할아버지 환갑 감축드립니다.
- 거부권(拒否權):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할 수 있는 권리.) ◇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 나 있지 않은 상태이다. ㉠ 관련 표현: 거부권 행사, 법률 거부권
- 격려(激勵):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줌.) ◇ 노무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서울 태릉 선수촌을 찾아 오는 8월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에 여념이 없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 관련 표현: 격려사, 격려 간담회, 격려 다과회, 격려 메시지, 격려 서신, 격려 오찬, 격려 인사, 감사와 격려의 말씀, 노고를 격려하다
- 경호(警護):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보호함. ㉠ 대통령 경호/왕궁을 경호하던 군사/대통령을 경호하다.) ◇ 이것은 아시다시피 법에 근거해서 정당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호 전례와 마찬가지로 법에 입각해서 매입한 땅이다. ㉠ 관련 표현: 경호대, 경호실, 경호실법, 경호실장, 경호실장기, 경호원, 경호처, 경호처장, 경호팀, 경호 대기동, 경호 문제, 경호 비행, 경호 업무, 경호 요원, 경호 전문가, 경호 차량, 경호용 방탄차, 대통령경호실, 근접 경호 임무, 선진 경호 기법, 왕궁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
- 계엄(戒嚴): ① 일정한 곳을 병력으로 경계함. ② [법]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

- 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 대통령이 법률에 의거하여 선포하며,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이 있다.) ◇ 물론 대통령은 계엄의 계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 관련 표현: 계엄군, 계엄법, 계엄포고령, 비상계엄
- 계엄령(戒嚴令): (대통령이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 ◇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파를 압살했다면 당연히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 관련 표현: 계엄령 선포권
- 공신(功臣): (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 ㉮ 건국의 일등 공신.) ◇ 행정경험을 갖지 못한 대선 공신들이 대거 청와대를 장악해 국정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 일부의 주장이다. ㉮ 관련 표현: 대선 공신, 일등 공신, 특급 공신
- 관저(官邸):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관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 ◇ 관저의 서재에서 보고를 받고 있던 대통령을 여사님이 거실에서 급히 찾았다. ㉮ 관련 표현: 군정장관 관저, 대사 관저, 대통령 관저,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 수상 관저, 여왕의 관저, 청와대 관저, 총독 관저, 총독부 관저; 국회의장 공관, 경호실장 관사, 조선총독부 관사, 총독 관사
- 교시(敎示): (① 가르쳐서 보임. ② 길잡이로 삼는 가르침.) ◇ 국민을 사랑하사 친히 교시하시고...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었나? ㉮ 관련 표현: 교시 말씀
- 국가원수(國家元首):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지니고 다스리는 사람. 공화국에서는 주로 대통령을, 군주국에서는 군주를 이른다. ㉮ 원수02(元首). ㉮ 양국 국가 원수의 정상 회담.) ◇ 그러면 다른 나라 국가원수들은 저를 아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제 얘기를 듣습니다. ㉮ 관련 표현: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 국가원수 및 행정 수반
- 국모(國母): (임금의 아내나 임금의 어머니를 이르던 말.) ◇ 또 “한 나라당 충북도당 박근령 선대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 받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모이신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를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기사 자료)
- 국부(國父): (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임금01’을 이르는 말. ② 나라를 세우는 데 공로가 많아 국민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를 이르는 말.) ◇ 특히 새해에는 저희들 같이 묵묵히 일하는 집배원들도 좀 챙겨주고 격려도 해주는 자상한 국부(國父)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간청합니다. ㉠ 관련 표현: 국부 이승만 대통령

국빈(國賓): (나라에서 정식으로 초대한 외국 손님. 주로 외국의 국가 원수가 이 대우를 받는다. ㉡ 대통령 내외가 국빈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 오늘 저녁 각하 내외분을 국빈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 관련 표현: 국빈급, 국빈맞이, 국빈 내외분, 국빈 대우, 국빈 만찬, 국빈 만찬사, 국빈 방문, 국빈 방한, 국빈 선물, 국빈 숙소, 국빈 영접, 국빈 오찬, 국빈 의전, 국빈 접견

국새(國璽): (①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 ② [역]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하던 임금의 도장.) ◇ 새 국새는 전통방식에 따라 주물로 제작됐지만 조각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했다는 평가다.

군림(君臨): (① 임금으로서 나라를 거느려 다스림. ② 어떤 분야에서 절대적인 세력을 가지고 남을 압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법 위에 군림하던 대통령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심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 관련 표현: 군림하는 통치자, 국민 위에 군림하다, 당 위에 군림하다, 법 위에 군림하다,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다, 지배자로 군림하다

군주(君主): (세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 ◇ 대중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뭔가 군주는 다를 것이고 위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험난한 상황이라도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관련 표현: 군주론, 군주제, 전제군주, 전제군주 시대, 독재 군주, 절대 군주, 제왕적 군주

권능(權能):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대통령의 권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 관련 표현: 무소불위의 권능

권력(權力):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부도 임기라는 형식 정도만

갖추었을 뿐 사실상 권력의 본질은 조선시대의 왕조나 다름
아닙니다. ㉮ 관련 표현: 권력기관, 권력욕, 권력자, 권력투쟁,
권력층, 권력화, 국가권력, 정치권력, 권력 기반, 권력 누수, 권
력 문화, 권력 배분, 권력 싸움, 권력 유지, 권력 이양, 권력 조
직, 권력 주체, 권력 질서, 권력 집단, 권력 집중, 권력 찬탈자,
권력 행사, 권력 행위, 권력의 단맛, 권력의 시녀, 권력형 부정
부패, 권력형 비리, 국회 권력, 대통령 권력 분산, 독재 권력,
미션 권력, 제왕적 권력, 언론 권력, 의회 권력, 지배 권력, 초
과 권력, 최고 권력, 절대 권력자, 최고 권력자

권좌(權座): (권력, 특히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 ◇ 무슨 짓을
해서든지 가급적 빨리 노무현대통령을 대통령의 권좌에서 끌
어내리는 것이었다는 얘깁니다. ㉮ 관련 표현: 권좌 복귀

긴급명령(緊急命令):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 국가 원수가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국가 긴급 명
령도 긴급명령권 행사하고 나면 그건 전시에 국회가 소집 불
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 ㉮ 관련 표현: 긴급명령권

나라님: (나라의 임자라는 뜻으로, ‘임금’을 이르는 말.) ◇ 셋째는
자신의 삶이 힘겹다고 나라님만 욕하는 그야말로 무지랭이들
입니다.

낙점(落點): (여러 후보가 있을 때 그중에 마땅한 대상을 고름.) ◇
보스의 낙점 대신 당원과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았습니다. ㉮
관련 표현: 낙점식 공천, 보스의 낙점

내려 보내다: (올림말 없음) ◇ 청와대에서 단 한 푼도 내려보내 주
지 못하는 데 후원금 모금해서 해야 하는데, 돈이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뿌릴 수는 있겠는가?

(대통령) 내외(内外)⁶⁾: (=부부.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20일 저녁, 이번 ASEAN+3 관련 정상회
의 주최국인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 내외가 마련한 참가국

6) 청와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부에게 ‘내외(분)’만 쓰는 반면 총리 이
하의 부부들에게는 ‘부부’를 차별적으로 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정복(2001나:43~45)를 참조하면 된다.

정상과 각료들을 위한 만찬에 참석했다. ㉠ 관련 표현: 국왕 내외, 대통령 내외, 대통령님 내외, 일본 천황 내외, 전직 대통령 내외, 주러시아 대사 내외, 주석 내외, 주지사 내외, 총독 내외, 총리 내외; 경호실장 내외, 비서실장 내외, 아들 내외;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노무현 대통령 부부, 물라 대통령 부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부부, 송일·김보원 부부, 시장·군수·구청장 부부, 앨빈 토플러 부부, IPC 위원장(영국, IOC위원) 부부

(대통령) 내외분: (‘부부03’를 높여 이르는 말. 『대통령 내외분께서 오셨습니다.』 ◇ 이어서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광주의 주요 행사에 하나 더 참석하신 후에 청와대에서 덴마크 여왕을 위한 국민만찬에 참석하시게 되어있다. ㉡ 관련 표현: 각하 내외분, 국민 내외분, 대통령님 내외분, 대통령 각하 내외분, 여왕 폐하 내외분, 주한 미군 사령관 내외분, 천황 폐하 내외분, 총독 각하 내외분, 총리 각하 내외분, 폐하 내외분

내정(內定): ①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정함. ② 정식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인사가 정해짐. ◇ ‘내정’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가끔 쓰시는데, 그건 굉장히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 관련 표현: 내정자

노심(盧心)⁷⁾: (올림말 없음) ◇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선출된 후보가 바로 이른바 ‘노심’입니다.

노통(盧統)⁸⁾: (올림말 없음) ◇ 그렇다면 노통이 선거법위반을 전제로 한 사과요구는 원인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 관련 표현: 노통님, 노통 각하, 노통 시대, 노통 지지자, 박통, 전통

7) ‘노심’은 임시직·비유적으로 만들어진 말로서 왕조 시대에 쓰이던 ‘어심’(御心)의 현대적 표현이다.

8) ‘노통’(노무현 대통령)의 원조는 ‘박통’(박정희 대통령)이다. 1980년대 ‘전통’(전두환 대통령), ‘노통’(노태우 대통령)도 많이 쓰였다. 이런 말들은 경제적 동기에 따른 줄임말이면서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인 지시와 곤란한 언어적 대우 문제를 피하기 위한 ‘은어적 동기’, ‘경어법 사용 회피 전략’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각각 영문자 줄임말 ‘YS’, ‘DJ’가 널리 쓰였기 때문에 ‘김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담화(談話): (한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말. 『내일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될 예정이다.』 ◇ 계획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일단 국회와 국민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셨다. ㉠ 관련 표현: 대통령 담화, 특별 담화

당부(當付): (말로 단단히 부탁함. 또는 그런 부탁.) ◇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KBS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희망2008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관련 표현: 당부 드리다, 당부 말씀, 협조 당부

당선인(當選人)⁹⁾: (=당선자. 선거에서 뽑힌 사람.) ◇ 권양숙 여사는 당선인 부인 김윤옥 여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1시간 20분동안 대화를 나누셨다. ㉢ 관련 표현: 당선인님, 당선인 대변인, 당선인 부인, 당선인 비서실, 당선인 비서실장, 당선인 시절, 당선인 집무실, 당선인 측, 당선인의 공약, 당선인의 국정철학, 당선인의 요청, 당선인의 지침,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 이(명박) 당선인, 당선자, 당선자님, 당선자 공약, 당선자 대변인, 당선자 비서실, 당선자 비서실장, 당선자 사무실, 당선자 시절, 당선자 신분, 당선자 집무실, 당선자 쪽, 당선자 측, 당선자 회동, 당선자의 공약, 당선자의 국정철학, 노(무현)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당선자

당신(當身):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 대통령의 인수위에 대한 생각이 당신이 당선인일 때나 그리고 지금 대통령일 때나 변함이 없다. ㉣ 관련 표현: 당신의 고민, 당신의 길, 당신의 원칙, 대통령 당신

대권(大權):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국가의 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 ◇ 아직도 ‘대권’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에서 ‘대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관련 표현: 대권 가도, 대권 경쟁, 대권 구도, 대권 레

9) ‘당선인’과 함께 ‘당선자’가 섞여 쓰이고 있는데, 현재 <헌법>에서는 ‘당선자’로 나오고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 법> 등의 법률에는 ‘당선인’으로 나온다.

이스, 대권 주자, 대권 창출, 대권 후보, 비상대권, 국민 대권 시대, 차기 대권

대료(大怒): (크게 화를 냄.) ◇ 갑자기 노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틀 전 방송된 KBS ‘추적 60분’을 보고 대노했기 때문이었다.

대선(大選): (올림말 없음) ◇ 따라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 확정하는 것은 ‘정권 말 대못 박기’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관련 표현: 대선용, 대선 공신, 대선 공약, 대선 과정, 대선 구도, 대선 국면, 대선 및 총선, 대선 승리, 대선 이후, 대선 일정, 대선 주자, 대선 특수, 대선 패배, 대선 후보, 불법 대선 자금

대통령(大統領):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에 속한다.) ◇ 아침에 26일날 전국 검사장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보도됐는데 검찰에 대한 외부 감찰, 검찰수사권 문제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 관련 표현: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대통령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령 각하,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내외(분), 대통령 담화,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말씀,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상징, 대통령 생신, 대통령 서신,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물, 대통령 자문기구, 대통령 지시, 대통령 탄핵, 대통령 할아버지, 대통령 후보, 국부 이승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아저씨), 전두환 대통령, 전직 대통령, 차기 대통령, 현직 대통령

대통령(大統領)님: (올림말 없음) ◇ 대통령님 행사가 있을 때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다. ㉠ 관련 표현: 대통령님 내외(분), 대통령님 말씀, 대통령님 생신, 대통령님 서신, 대통령님 지시, 대통령님의 일정,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님, 이승만 대통령님

독대(獨對):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임금을 대하여 정치

에 관한 의견을 아뢰던 일.) ◇ 참모들 가운데 일부는 독대를 부활하자고 건의하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독대를 없앤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 관련 표현: 주례 독대

등극(登極): (임금의 자리에 오름.) ◇ 기존 메인스트림의 구조에 완전히 소외됐던 인자가 최고통치자로 등극한 이 초유의 사태에 메인스트림 전체가 미쳐돌아갑니다.

레이덕(lame duck):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 ◇ 시기가 정권 말 레이덕 논쟁이 거론된 시점이었는데도 새로운 업무의 추진과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은 지속되었습니다. ㉠ 관련 표현: 레이덕 현상, 조기 레이덕

메시지(message):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경고하기 위하여 보내는 전언(傳言). ‘교서’, ‘성명서’, ‘전갈’로 순화.) ◇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오후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메시지를 보내 [...] ㉠ 격려 메시지, 대통령 메시지, 설 메시지, 영상 메시지, 위로 메시지, 조문 메시지, 추석 메시지, 축하 메시지

명령(命令): ①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에게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함. 또는 그런 내용. ㉠ 명(命)·영(令). ② [법] 공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 ◇ 제왕적 지도자가 명령하지 않아도 권력기관들이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 관련 표현: 명령을 내리다, 긴급명령, 긴급명령권, 절대자의 명령

모시다: ① 웃어른이나 존경하는 이를 가까이에서 받들다. ② 웃어른이나 신주 따위를 어떤 곳에 자리 잡게 하다.) ◇ 그런 질책을 받을 행동은 처음 부터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한다./그럼 대통령 내외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관련 표현: 모시는 주군, 국민으로 모시다, 대통령을 모시는 공직자, 전임자를 잘 모시다, 총리 각하를 모시다

무소불위(無所不爲):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 ㉠ 그는 절대 왕정의 군주처럼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둘렀다.) ◇ 지금도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

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 관련 표현: 무소불위의 권능, 무소불위의 권력, 무소불위의 권한, 무소불위의 독재 시대, 무소불위의 위력,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 무소불위의 지위, 무소불위의 힘

보필(輔弼): (윗사람의 일을 도움. 또는 그런 사람. ‘모심’, ‘도움’으로 순화. ㉠참모들의 보필을 받다/열 명의 신하를 보필로 삼다/부장님은 능력 있는 과장의 보필 덕에 승진하였다.) ◇ 모두 인수위 출신으로 일찌감치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해 온 정책브레인들이었다.

봉황(鳳凰): (예로부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 ◇ 권위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검소한 취임식인데요, 봉황은 일찌감치 날려 보냈습니다. ㉠ 관련 표현: 봉황상, 봉황 무늬, 봉황 문양, 대통령 문양

비준(批准): ([법]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 비준 전에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충분해 있다고 본다. ㉠ 관련 표현: 비준 동의안, 조약 비준권

사면(赦免): ([법]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대통령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범을 사면하였다.) ◇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이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관련 표현: 사면권, 사면법, 일반사면, 특별사면(특사)

사저(私邸)¹⁰⁾: (개인의 저택. 또는 고관(高官)이 사사로이 거주하는 주택을 관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자꾸 대통령님 사저와 그 주변 봉하마을과 관련된 계획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 관련 표현: 국왕 사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대통령님 사저, 대통령의 사저, 동교동 사저, 푸틴 대통령 사저, 봉하 마을 사저

상신(上申):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함. ‘여쭙’, ‘알림’으로 순화. ㉠상신을 올리

10) 조선 시대에는 임금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집을 ‘잠저’(潛邸)로 불렀다.

다/파업에 관한 현장에서의 상신이 있는 직후에 본사에서는 대책 회의가 열렸다.) ◇ 권 비서관에 대해 이미 상신된 근정 훈장의 포장을 취소하고 원 소속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복귀 조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

상왕(上王): ([역] 자리를 물려주고 들어앉은 임금을 이르는 말.)
◇ ‘상왕정치’ ‘현실정치 개입’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해 김 대통령이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상찬(賞讚): (기리어 칭찬함.) ◇ 방미기간 동안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상찬(賞讚)과 친한(親韓) 발언이 적지 않았다.

생신(生辰)¹¹⁾: (‘생일(生日)’을 높여 이르는 말.) ◇ 그리고 대통령님 생신이 일요일이다. ㉠ 관련 표현: 생신 잔치, 노 대통령 생신, (노무현) 대통령님 생신, 바세스쿠 대통령님 부인의 생신, 여사님의 57회 생신, 생일, 생일날, 생일상, 생일 잔치, 생일 축하 케이크, 생일 파티, 김대중 전 대통령 81회 생일 축하, 김일성 주석 90주년 생일, 노 대통령의 59회 생일, 대통령 생일

서신(書信)¹²⁾: (=편지(片紙).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제4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신을 보내 격려했다. ㉡ 관련 표현: 서신 전달, 서신 전문, 격려 서신, 공개 서신, 대국민 서신, 대국회 서신, 대통령(님) 서신, 위로 서신, 지휘 서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대통령님 편지, 대통령의 편지

수뇌(首腦): (어떤 조직, 단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리의 인물. ㉢

- 11) 대통령에 대해서 ‘생일’보다는 ‘생신’을 더 많이 썼다. ‘생신’은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높임 표현이지만 청와대 공무원이 공식적 맥락에서 집중적으로 쓴 점에서 대통령의 권위를 고려한 전용말 표현이라 보는 것이다. 이와 달리 청와대 직원이나 일반인에 대해서는 ‘생일’을 주로 쓰고 있다.
- 12) 누리집의 정보 항목 이름 등에서 ‘대통령의 편지/기고’와 같이 ‘편지’를 일부 쓰기도 하였지만 ‘격려서신, 대국민서신’처럼 ‘서신’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었다. 일반 국민들이 보낸 것은 ‘편지’로 구별하고 있는 점에서 대통령 전용말의 하나로 본다.

수뇌자주뇌(主腦). 『수뇌 회의/양국 수뇌들이 모여 상호 관심사를 협의했다.』 ◇ 지난 7년 전 북남 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만방에 과시한 세계적인 사변이었습니다. 『관련 표현: 수뇌분, 군 수뇌부, 당 수뇌부, 북남 수뇌 상봉』

수반(首班): ① 반열(班列) 가운데 으뜸가는 자리. ②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우두머리’로 순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정부의 수반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 국가의 수반이 가장 정확하게 보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련 표현: 국가수반, 내각 수반, 정부 수반, 행정(부) 수반』

수여(授與): (증서, 상장, 훈장 따위를 줌.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이임 인사차 예방한 피터 페이스(Peter Pace) 미국 합참의장에게 서훈을 수여하고 환답했다. 『관련 표현: 위촉장 수여(식), 장학증서 수여(식), 표창 수여, 훈장 수여, 훈포장 수여권』

순시(巡視): (돌아다니며 사정(四正)을 보살핌. 또는 그런 사람.) ◇ 지방순시 행사 때에는 지역업자들과의 유착을 우려해 지방관서장이 간담비용을 내던 관행을 깨고 장관실에서 직접 지불토록 했다. 『관련 표현: 연두순시, 지방순시, 현장 순시』

승인(承認):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 ‘인정함’으로 순화.) ◇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승인하셨다. 『관련 표현: 대통령 승인, 최종 승인』

시찰(視察): (두루 돌아다니며 실지(實地)의 사정을 살핌.) ◇ 뉴질랜드 국민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8일 오후, 웰링턴 소재 ‘파크 로드 포스트(Park Road Post) 영화제작소’를 시찰했다. 『관련 표현: 대통령님 시찰, 지방 시찰』

신하(臣下): (임금을 섬기어 베풀하는 사람.) ◇ 우리 여수와 우리 한국에 발전을 위하여대통령의 어린 신하는 그만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양망(仰望):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 ◇ 노무현 후보님! [...] 물러섬이 없는 용기와 의지로 건승하시기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양망하며 님을 위해 이곳에서의 제 한

표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어른: (한 집안이나 마을 따위의 집단에서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 ◇ 나라의 어른이신데 어른이 참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그 부분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 ㉠ 관련 표현: 어르신, 어른의 정치, 나라의 어른, 박정희 그 어른, 청와대 어른, 큰 어른

여사(女史): (① 결혼한 여자를 높여 이르는 말. ②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자를 높여 이르는 말.) ◇ 한편, 차 강사는 권 여사 일행을 위해 박물관의 전통악기 전시관에 전시된 편종과 편각을 이용해 깜짝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 관련 표현: 권(양숙) 여사, 김윤옥 여사, 박근혜 여사, 오바산조 대통령 영부인 스텔라 오바산조 여사, 이회호 여사

여사(女史)님: (올림말 없음) ◇ 사실 뭐 여사님이 변 전 실장 부인을 만나신 것, 그래서 위로를 하신 것은 뭐 당연하고 잘 했다고도 생각은 든다. ㉢ 관련 표현: 여사님 격려사, 여사님 연설문, 여사님 축하 메시지, 권(양숙) 여사님, 이회호 여사님

연두교서(年頭敎書): (미국 대통령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내는 교서. 일반 교서, 예산 교서 따위가 있다.) ◇ [...] 미국은 2006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 경쟁력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

영단(英斷):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 ㉣ 국민들은 대통령의 영단을 기다렸다.) ◇ [...] 당시 언론은 “박대통령의 일대영단” “영도자로서 심모원려”라는 수식어와 함께 “국력의 팽창과 발전의 상징”이라고 보도했다.

영도자(領導者):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 ㉤ 영도자로 받들다 / 영도자로 세우다/꼭 같은 정부라 할지라도 영도자의 정신 상태 하나에 따라 국가 형편이 그렇게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서...《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 더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거대한 황금조각의 영도자가 아닙니다. ㉥ 관련 표현: 영도자의 영단, 국가 영도자, 유일 영도자

영부인(令夫人):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 대통령 영부인.) ◇ 잘 아시지만 어제 대통령 영부인이신 권양숙 여사께서 북한의 여성 대표자들과 백화원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 관련

표현: 영부인님, 대통령 각하와 영부인, 대통령과 영부인, 대통령
의 영부인

영식(令息): (윗사람의 아들을 높여 이르는 말.) ◇ 노 대통령의 영
식인 견호씨 부부가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이 빠른 새벽 2시
30분에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고 청와대측이 발표했다.
(기사 자료)

영애(令愛): (윗사람의 딸을 높여 이르는 말.) ◇ 실미도의 청년들이
허무하게 살육당해도 그 자손들이 영애라는 이름으로 당 대표
를 하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영접(迎接):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 전용기가 공항에 도착,
앞문이 열리자 조세형(趙世衡) 주일대사와 오다노 일본측 의전
장이 기내로 들어가 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예방(禮訪): (예를 갖추는 의미로 인사차 방문함. 『대통령은 외국 경
제 사절단의 예방을 받고 투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 먼
저 청와대 예방하고 대통령 면담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가 없다. 『 관련 표현: 예방을 받다, 국왕대행(상원의장) 예방,
벨로루시 총리의 예방, 천황 예방,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예방, 힐 차관보 예방

유시(諭示): (관청 따위에서 국민을 타일러 가르침. 또는 그런 문서.
『민란이 점점 번져 나가는데도 조정에서 내려 보낸 유시에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 대통령각하 유시—
77. 3. 29. 77년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문헌 자료)

재가(裁可): ① 안전을 결재하여 허가함. 『재가를 얻다/그런 계획은
사장의 재가를 받기 어렵다./나의 재가가 없는 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② [역] 왕이 직접 안전에 어새(御璽)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던 일. 『이제 우리가 내세운 폐정 개혁 조항은
상감이 재가를 하신 것인 만큼 이 화약 조항은 우리 농민군하
고 조정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송기숙, 녹두 장군》』
◇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어제 행자부가 특별재난지역 공포를
건의해 왔고,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재가를 하셨다. 『 관련
표현: 대통령 재가

전용기(專用機): (특정한 사람만이 이용하는 비행기. 『대통령 전용
기.』 ◇ 노 대통령 일행을 태운 전용기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하네다(羽田) 공항에 안착했다. ㄹ 관련 표현: 대통령 전용기, 정부 전용기; 전용헬기

접견(接見): (공식적으로 손님을 맞아들여 만나 봄. ㄹ 대통령은 오늘 저녁 8시 대사를 접견할 예정이다.) ◇ 노무현 대통령 제1차 남북총리회담 참석차 방한한 김영일 내각총리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ㄹ 관련 표현: 접견 다과회, 접견 및 오찬, 국빈 접견, 국회의장 접견, 수여 및 접견, 외빈 접견, 합동 접견

정상(頂上): (한 나라의 최고 수뇌. ㄹ 정상들이 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 양국 정상은 후쿠다 총리가 취임 인사차 전화를 하고 남북정상회담 후 노 대통령이 전화를 하여 두 차례 통화한 적은 있었지만 대면하여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ㄹ 관련 표현: 정상간, 정상회담, 정상 만찬, 정상 방문, 정상 배우자, 정상 선언, 정상 오찬, 정상 외교, 정상 차원, 정상 환담, 정상 회의, 정상과 각료,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 회의, 두 정상, 양(국) 정상, 한·독 정상회담, 한·프 정상회담, 한·ASEAN 정상 회의, APEC 정상 회의, ASEM 정상 회의

제왕(帝王): (황제와 국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제왕이 사라지니 2인자도, 실세도 있을 리 없다. ㄹ 관련 표현: 제왕의 자리, 제왕적 권력,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절대 권력, 제왕적 지도자, 제왕적 총재, 제왕적 통치자

제청(提請):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 또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김만복 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안광복 현 국가정보원 실장을 임명했다. ㄹ 관련 표현: 제청권, 제청을 받다, 임명 제청, 국무총리의 제청, 장관의 제청

주군(主君): (=임금. 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 오직 당신이 섬겼던 주군, 전두환 노태우 같은 정치군인들의 권력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나요? ㄹ 관련 표현: 주군의 높은 자리, 자신이 모시는 주군

지도자(指導者):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 ◇ 요체는 지도자의 의지이고, 다음은 정부와 언론 사이에 원칙을 세우고 시스템

로 관계를 설정해 서로의 영역과 역할을 보장하는 것이다. ㉞
 관련 표현: 지도자상, 국가 지도자, 국가 최고 지도자, 국정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민주주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 최고 지도자

지배자(支配者): (남을 지배하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 국가와 지배자가 피지배자인 민중 위에 군림하고 전횡하면서 외치는 민본주의란 구두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㉞ 관련 표현: 지배자로 군림하다, 지배자와 백성, 피지배자, 관료적 지배자

지시(指示): (① 일러서 시킴. 또는 그 내용. ㉞ 지시 사항/지시가 내리다/지시에 따르다/지시를 받다/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다/출병을 위하여 미리 잠을 자 두라는 지시에 따라 모두 민가에 흩어졌다는 것이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② [법]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하는 행정 규칙.) ◇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㉞ 관련 표현: 지시 사항, 지시나 지침, 지시를 내리다, 지시와 명령, 대책 지시, 대통령님(의) 지시, 재수사 검토 지시, 청와대의 지시

지휘(指揮):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단체의 행동을 통솔함.) ◇ 아직 현직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할 공무원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일 아닌가요? ㉞ 관련 표현: 지휘 책임, 지휘 체계, 대통령의 지휘, 직접 지휘

청와대(靑瓦臺): (서울 경복궁 뒤 북악산 기슭에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 관저.) ◇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노인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복지 지출에 큰 타격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㉞ 관련 표현: 청와대 경호실,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관저,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본관, 청와대 비서관,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사칭, 청와대 안주인, 청와대 어른, 청와대 의전, 청와대 입장, 청와대 참모, 청와대 측근, 경무대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 ◇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을 관저로 초치해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충복(忠僕): ① 주인을 충심으로 섬기는 사내중. ② 어떤 사람을 충직하게 받드는 사람.) ◇ 현실정치권에 들어와 보고 느낀 것은 ‘대통령에겐 충복이 없다’는 사실이다. ㉮ 관련 표현: 대통령의 진정한 충복

충신(忠臣): (육정신의 하나.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신하를 이른다.) ◇ 정권의 안보는 물론 다음 정권 재창출조차 물거품으로 만들 뻔 했던, 대통령 아들 비리 문제 역시 충신이 사라진 정권 말기의 청와대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측근(側近):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 ㉮왕의 측근.) ◇ 그래서 검찰도 제 측근을 임명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가장 신망 있다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 관련 표현: 측근 관리 시스템, 측근 문제, 측근 비리, 측근 수사, 측근 실세, 측근 인물, 측근 정치, 최측근, 대통령(의) 측근, 청와대 측근, 핵심 측근

치사(致詞/致辭): ① 다른 사람을 칭찬함. 또는 그런 말. ② [역] 경사가 있을 때에 임금에게 올리던 송덕(頌德)의 글.) ◇ 해군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 치사

치하(治下): (통치 아래.) ◇ [...]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치하의 근 30년에 걸친 군사독재 끝에 민주통치 복원에 기초를 놓은 공로는 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 관련 표현: 독재 치하, 일제 치하, 전두환 대통령 치하

치하(致賀):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주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모범교원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 관련 표현: 치하를 드리다, 감사와 치하의 말씀

친수(親授): (손수 줌. ㉮이번에 내시와 의관에게 특별히 친수를 명하여 승진시켜 명분에 맞지 않는 은혜가 내려졌으니 일이 매우 공정하지 못합니다.《번역 명종실록》)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국 프로골프(PGA) 통산 6회 우승한 최경주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친수하고 격려했다. ㉮ 관련 표현: 장학증서 친수식, 훈장 친수식

친히(親之)¹³⁾: (=몸소 직접 제 몸으로.) ◇ 정문찬 이장, 유하준 경노 회장, 소순금 부녀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밭뽕 들여’ 친히 찾아온 대통령 내외를 “마을에 큰 경사가 났다”며 반갑게 맞이했다. ㉠ 관련 표현: 친히 다가가다

태양(太陽): (매우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군사구테타의 주역인 전두환을 ‘민족의 태양’이라 불렀던 5공시절 데스크팀의 비겁에 분개한 PD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현 ‘MBC PD수첩’이다.

통수(統帥): (=통솔. 무리를 거느려 다스림.) ◇ 또 그를 위해서 국군을 통수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보면 항상 느낌이 든든합니다.

통수권(統帥權): (한 나라 전체의 병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력.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가 관장한다.) ◇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적 질서입니다. ㉡ 관련 표현: 국군통수권, 군 통수권, 국가 통수권자, 군 통수권자, 최고 통수권자

통치(統治):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 ◇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 진실규명 등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과거사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 관련 표현: 통치행위, 통치 수단, 통치 스타일, 통치 시대, 통치 이념, 통치 이데올로기, 통치 자금, 통치 철학, 통치 체계, 통치적 결단, 철권통치, 군부 통치, 독재 통치

통치권(統治權): ([법]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지배권.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 의사를 실현하는 무조건적 권력이다.) ◇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한 입법부의 입법훼손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말하고 있다. ㉣ 관련 표현: 통치권자, 국가 (최고) 통치권자, 초법적 통치권

통치자(統治者): (일정한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리는 사람.) ◇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통치자를 최선으로 치고, 백성들에게 멸시당하는 치자를 최악으로 치는 동양의 전통으로 볼 때 노무

13) 현재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하여 ‘친(親)이 접두사로 들어간 말로서 ‘친수’만 쓰이는데, 과거 왕조 시대에는 ‘친시(親試), 친열(親閱), 친정(親政), 친책(親策)’과 같이 왕의 직접적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쓰였다.

현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 관련 표현: 군림하는 통치자, 제왕적 통치자, 최고 통치자

특사(特赦): (‘특별 사면’을 줄여 이르는 말. 사면의 하나. 형(刑)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이며 대통령이 행한다.) ◇ 일부 항상 특사가 있을 때마다 비관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관련 표현: 특사 기준, 특사를 단행하다, 연말 특사

특사(特使):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사절(使節). ㉢ 대통령의 특사) ◇ 특사는, 특사로서의 활동은 저희로서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 ㉣ 관련 표현: 특사 자격, 특사 파견, 당선인 특사, 대북 특사, 대통령 특사

퍼스트레이디(first lady): (=영부인) ◇ 양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별도의 만남을 가진 것은 2003년 5월 노 대통령 방미 이후 처음이다. ㉤ 관련 표현: 노무현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하달(下達): (상부나 윗사람의 명령, 지시, 결정 및 의사 따위를 하부나 아랫사람에게 내리거나 전달함.) ◇ 대통령도 김장수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지침을 하달했다. ㉥ 관련 표현: 상명하달, 상의하달, 하의상달

하례(賀禮): (축하하여 예를 차림. ㉦ 신년 하례/하례를 드리다, ㉧ 왕께 하례하다//선비들은 때를 지어 수녕궁 앞에 나아가 밝은 임금의 성스러운 덕을 하례하는 상소를 올린 뒤에...《박종화, 다정불심》) ◇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이해찬 총리와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보좌관들의 신년 하례를 받고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올해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나 싸울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사(下賜): (임금이 신하에게,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줌.) ◇ 건의 합니다. 정부에서 정몽헌 회장에 훈장이라도 하사함이 옳다고 봅니다.

환담(歡談)¹⁴⁾: (정답고 즐겁게 서로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 ㉨

14) ‘환담’이나 ‘회담’의 경우 뜻 자체에서는 대통령의 권위와 관계가 없지만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쓰이는 점에서 대통령 전용말의 보기로 든다. 두 말은 일반인들이 거의 쓰이지 않는 공통점도 있다.

정상 회담에 앞서 잠시 환담이 오고 갔다. 『대통령은 연회 참석자들과 환담하였다.』 ◇ 이어진 환담에서 노 대통령은, 역내 안보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페이스 장군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관련 표현: 작별 환담, 정상 환담』

회담(會談):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의함. 또는 그 토의. 『최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다/이날 회담에서 양국 대표들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정상들이 2박 3일 동안 회담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았다.』 ◇ 무엇보다 나는 이번 회담을 통해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련 표현: 회담장,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여야 영수 회담, 6자 회담, 장관급 회담, 청와대 회담, 총리 회담, 한·독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후계자(後繼者): (어떤 일이나 사람의 뒤를 잇는 사람.) ◇ 후계자를 지명하는 듯한 당시 대통령의 발언이 용인될 수 있었던 것은 공천권과 자금을 통해 당을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관련 표현: 후계자 구도, 후계자 수업, 후계자 양성, 후계자를 지명하다』

훈시(訓示)¹⁵⁾: (① 상관이 하관에게 집무상의 주의 사항을 일러 보임. ② 가르쳐 보이거나 타이름.) ◇ 청와대에 올 때 기분 좋게 왔는데 훈시 듣고 하면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관련 표현: 훈시 사항』

VIP: (정부 요인이나 국민 등과 같이 특별히 대우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인물.) ◇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방안’을 수립(04.9)하고 VIP 방리를 계기로 ‘동북아협력구상과 대러에너지 협력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위에서 제시한 대통령 전용말 116개 가운데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쓰인 ‘국모, 영식, 유시’는 청와대 누리집 자료에서 쓰임이

15) 조선 시대에는 ‘훈시’와 비슷한 뜻으로 ‘훈사’(訓辭)를 썼다.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기는 당시의 신문 기사나 문헌 자료에서 가져 온 것이다. ‘연두교서’는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쓰임만 1회 나타났다. ‘대통령님, 여사님, 대선/대통령선거’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았는데,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경우 ‘님’이 추가적 가리킴말의 성질을 띠며, 특히 ‘대통령님’은 최근에 쓰이기 시작한 말이기 때문에 사전에 실릴 가능성이 낮다. 이와 달리 ‘대선’ 또는 ‘대통령선거’가 없는 것은 사전 편찬상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가리키는 ‘총선’(總選)이 실려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올림말 선정의 균형이 유지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2. 대통령 전용말의 유형

대통령 전용말은 사용 시기, 전용성(專用性)의 정도, 사용 방식 및 방향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역사적 시기’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언제까지 쓰였는지를 말하며, ‘전용성의 정도’는 대통령 또는 관련 인물에게만 쓰는 말인지 하위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에게 확대되어 쓰이는 것인지를 말한다. ‘사용 방식 및 방향’은 본래의 뜻으로 쓴 것인지 비유적으로 쓴 것인지, 각 표현의 사용자 또는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각각의 전형적인 말들을 중심으로 유형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다.

1) 사용 시기

대통령 전용말 가운데서 왕조 시대부터 왕에게 사용하던 말이 현대의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져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개화기 이후 근대 또는 현대에 서양말에서 가져 왔거나 일본에서 번역하여 만들어 낸 새말을 들여 온 것이다. 두 가지 사용 시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⁶⁾

(2) 왕조 시대부터 쓰기 시작한 말

가. 가신, 간신, 간청, 감축, 공신, 국모, 국민, 국새, 군주, 권력, 권좌, 나라님, 대권, 신하, 제왕, 주군, 충신

나. 낙점, 독대, 등극, 보필, 사면, 영접, 재가, 접견, 제청, 지시, 지휘, 초치, 치사, 치하(致賀), 친수, 하례, 하사, 통치, 특사(特赦), 특사(特使), 훈시

(3) 개화기 이후 근현대에 들어서 쓰는 말

가. 각하, 거부권, 계엄, 계엄령, 관저, 국가원수, 대선, 대통령(님), 수뇌, 수반, 영도자, 정상, 지도자, 측근, 치하(治下), 통수권, 통치권, 통치자

나. 비준, 시찰, 승인, 예방, 통수, 하달

다. VIP, 레임덕, 메시지, 퍼스트레이디

(2)의 표현들은 왕조 시대부터 왕과 관련하여 쓰던 말이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 또는 관련 인물들에게 그대로 쓰이는 것이다. 임금을 가리키던 (2가)의 ‘군주’와 ‘나라님’이 비유적인 맥락에서 여전히 왕과 동급인 대통령에게 쓰인다. ‘가신, 간신, 공신, 신하, 충신’의 경우 “임금을 섬기어 베풀하는 사람”(신하)의 뜻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낱말들로서 봉건 시대의 잔재임이 외적으로도 뚜렷하다. (2나)의 ‘낙점, 독대, 등극, 재가, 초치, 하사’와 같이 동사 어근으로 쓰이는 말도 모두 왕의 권위를 살리기 위한 옛 표현들로서 민주주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3)의 보기는 개화기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일본에서 들어온 말

16) 각 표현의 사용 시기에 대한 판단은 박영섭(1994~1997), 송민(200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엮음(2001) 등의 문헌 자료와 인터넷 사이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을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내린 것이다. 이러한 표현의 구체적 사용 시기 및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본격적인 연구 작업을 통하여 밝힐 수 있겠다.

들로서 군주제를 대체하는 대통령제를 반영한 말이다. ‘각하,¹⁷⁾ 국가원수, 수뇌, 정상, 영도자’처럼 대통령의 지위를 최고로 높여서 보는 말이 있는가 하면 ‘계엄,¹⁸⁾ 수반, 국가원수, 통수권’처럼 대통령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헌법 용어도 많다. 이런 말을 통해서 볼 때 국민들의 투표에 따라 대통령이 되는 점은 왕과 다르지만 서열 체계에서 정점에 있다는 의식은 변함이 없다. (3나)의 ‘시찰, 승인, 통수’는 개화기 때 일본에서 들어온 동사 표현이며, (3다)의 ‘VIP, 레임덕, 메시지, 퍼스트레이디’는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VIP’는 ‘요인/중요 인물’로 번역되는 말인데, 청와대에서 특별히 대통령을 가리키기 위한 경호상의 은어로 쓰인다.

대통령 전용말을 쓰기 시작한 역사적 시기와 관련하여 분류하였을 때 왕조 시대와 근현대 이후의 두 시기에 나온 표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이 대통령을 최고의 지위에 두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봉건 시대의 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권력 체계의 정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말들이 본래의 뜻에서든 비유적 용법으로든 지금도 자연스럽게 계속 쓰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전용성 정도

대통령과 관련된 특별한 표현 가운데서 어떤 말들은 아직도 대통령 및 관련 인물에게만 한정되어 쓰는 것이 있다. 이와 달리 어

17) 근대 이전에도 ‘각하’는 ‘합하’(閣下)와 같은 뜻으로 정일품 벼슬아치에게 쓰였으나 대통령에 대하여 쓴 것은 근대 이후 일본에서 받아들인 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태조실록』을 보면 좌정승 조준이 정도전에게 ‘각하’를 쓴 보기가 나온다.

18) 조선 시대에도 ‘계엄’이라는 말이 쓰였으나 “일정한 곳을 병력으로 경계함”의 뜻으로 쓰여 현재의 법률적 용어와는 차이가 난다.

편 말들은 하위의 공무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확대되어 쓰이기도 한다. 앞의 표현들을 ‘완전한 대통령 전용말’이라고 한다면 뒤의 것들은 ‘유사 대통령 전용말’이라 하겠다. 유사 대통령 전용말의 경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비유적으로 쓰이다가 점차 일상적 용법으로 확대된 표현이다.

(4) 대통령 및 관련자에게만 쓰는 말

- 가. 각하, 관저, 국가원수, 국부, 권좌, 나라님, 대권, 대통령님, 수반, 영도자, 정상, 친수, 통수, 통수권, 통치, 통치권
나. 국모, 영부인, 퍼스트레이디

(5) 국민들 사이에서도 쓰는 말

- 가. VIP, 내외(분), 서신, 수뇌, 여사(님), 영식, 영애, 제왕
나. 경호, 군림, 낙점, 내정, 독대, 등극, 보필, 상신, 순시, 시찰, 예방, 접견, 제청, 지휘, 하달, 하사, 훈시

(4가)의 보기들은 아직도 대통령에게만 쓰고 있는 말로서 완전한 대통령 전용말이다.¹⁹⁾ ‘국가원수, 수반, 통수, 통수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나타내는 법률적 표현이다. 이와 달리 ‘국부, 권좌, 나라님’은 왕과 관련되어 쓰이던 표현이 대통령에게 이어져 쓰이는 것이다. (4나)의 ‘국모, 영부인, 퍼스트레이디’는 대통령 부인에게 한정해서 쓰고 있다. ‘영부인’의 경우 뜻이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가리키는 일종의 고유명사다.

19) ‘각하’는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쓰임이 제한되지만 외교상 다른 나라의 인물에 대한 쓰임은 범위가 넓다. 대통령이나 총독, 총리는 물론이고 주지사, 시장 등의 인물에게도 쓰인다. 북한의 내각총리에게도 ‘각하’를 붙인 용법이 관찰되었다. ‘관저’도 이와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관련하여 ‘관저’를 쓰는 일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공관’을 공식적인 용어로 씀으로써 대통령 전용말로서의 ‘관저’와 구별한다. 더 하위적인 공무원과 관련하여서는 ‘관사’(官舍)를 쓰고 있는 점에서 ‘관저>공관>관사’의 위계 구조가 성립된다.

(5가)의 말들은 대통령과 관련하여 쓰이면서도 공무원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인다. ‘영식’과 ‘영애’는 쓰임이 현실적으로 적지만 일반인들이 써서는 안 되는 말은 아니다. 또 (5나)의 ‘군림, 낙점, 독대, 보필’ 등도 정부 기관이나 민간에서 쓰는 표현이다. ‘낙점’이나 ‘독대’ 등이 왕조 시대에 만들어졌고, 현대 민주공화제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관련되어 쓰이고 있지만 이미 용법이 사회 일반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이러한 말들은 권위주의적인 뜻과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쓰더라도 비유적인 용법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 쓰는 ‘상신’은 ‘여쭙’ 또는 ‘알림’으로, ‘승인’은 ‘인정함’으로 순화하여 쓰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사용 방식 및 방향

대통령 전용말의 사용 방식 및 방향 가운데 먼저 사용 방식 면에서의 유형을 나누어 본다. 표현이 가진 본래의 뜻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비유적 용법으로 쓰는 것인지를 정리하면 (6), (7)과 같다. 어휘적 의미 그대로 쓰이는 말보다는 비유적인 용법을 보이는 것이 더 많다.

(6) 본래적 용법으로 쓰는 말

내정, 독대, 순시, 시찰, 예방, 접견, 제청, 친수

(7) 비유적 용법으로 쓰는 말

가. 국모, 국부, 나라님, 내외(분), 봉황, 수뇌, 정상, 태양

나. 가신, 간신, 공신, 신하, 충복, 충신

다. VIP, 레임덕, 퍼스트레이디

라. 낙점, 등극, 상신, 하달, 하사

(6)은 비유적 용법보다는 낱말의 본래 뜻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쓰이는 보기이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나 의미 굴절도 거의 없다. 반면 (7)의 표현들은 처음부터 비유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고, 일부는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는 본래적 용법으로 쓰였지만 현대에 들어서 비유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도 있다. (7가)의 ‘국모’나 ‘국부’는 처음부터 비유적 표현이었으며, (7나)의 ‘간신, 공신, 충신’ 등은 현대에 들어 비유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영어의 비유적 표현 ‘VIP, 레임덕, 퍼스트레이디’는 우리말에 들어와서도 같은 기능으로 쓰인다. (6)의 보기와 달리 (7라)의 ‘낙점, 등극’ 등은 처음부터 비유적으로 쓰였다.

한편, 사용 방향 면에서도 크게 둘로 나누어 유형을 살펴본다. (8)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향하여 쓰는 말이며, (9)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에게로 향하는 말이다.

(8) 국민들로부터 대통령과 관련자에게로 향한 말

가. 각하, 국가원수, 국모, 국부, 군주, 나라님, 내외(분), 당신, 대통령(님), 영도자, 주군, 통치자
나. 간청, 감축, 경호, 독대, 보필, 상신, 상찬, 양망, 예방, 제청, 하례

(9) 대통령으로부터 국민들에게로 향한 말

격려, 교시, 낙점, 내정, 당부, 순시, 시찰, 재가, 집견, 지시, 지휘, 초치, 치사, 치하(致賀), 친수, 통치, 하달, 하사, 훈시

(8가)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을 지시하는 표현으로서 부름 말이나 가리킴말로 쓰이는 것이다. (8나)는 움직임이나 그 결과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서 역시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에게로 방향이 정해진 말들이다. ‘간청, 감축, 상신, 양망, 예방, 하례’와 같이 대부분의 표현이 상위자에 대한 하위자의 ‘간절함, 존경, 예의, 정성’의 뜻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9)는 대통령의 움직임이나 그 결과가 공무원 또는

일반 국민에게로 향하고 있는 말로서 (8나)와 대조적이다. ‘낙점, 내정, 재가, 지시, 지휘, 초치, 통치, 하달’ 등을 보면 상위자로서의 강한 힘이 표현되거나 하위자에 대한 일방적 결정의 뜻이 들어 있다. 또 ‘격려, 교시, 당부, 치사, 치하, 훈시’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선생이 제자를, 임금이 백성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복돋움, 보호, 가르침,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어 상위자의 강한 권위가 느껴진다. 재미있는 점은 ‘치사’의 경우 본래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던’ 송덕의 글이었지만 현대에는 대통령이 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 ‘내리는’ 축하와 칭찬의 글로 바뀌어 쓰이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임금 또는 대통령과 직접 관련되는 점은 차이가 없다. (8나)와 (9)는 사용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왕조 시대 임금과 백성의 비대칭적 언어 사용 방식이 현대의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 쌍의 긴밀한 대응 표현이라 하겠다.

III. 대통령 전용말의 쓰임 실태

1. 주체에 따른 쓰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표현을 누가 사용했는지에 따라 쓰임의 차이가 있는지, 기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사용 주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대통령 자신이나 청와대 직원 등의 공무원, 둘째는 언론 및 관련 종사자, 셋째는 일반 국민들이다. 다음 보기는 세 주체 가운데서 둘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10) 둘 이상의 주체가 쓰는 말

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대통령님**의 지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범주 내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대통령의 재수사 검토 지시와 법무부의 특검 수용 입장 관련, 대변인 브리핑, 2007-12-17>

가-1. CNN 서울지국장 손지애: **대통령님**, 저희의 첫 번째 관심사는 역시 **대통령님**의 북한 방문입니다. 결국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겠지요. <“북 핵무기 포기의사 불신하지 않는다”, 국정브리핑>

가-2.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님** 집무하는 모습을 TV에서 잠깐본 적이 있는데 뒷 배경에 모형항공기 프라모델이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관람 게시판, 2007-05-01>

나.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은 2일 군 작전 및 해외파병 임무수행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며 위로했다. <군 장병 유가족 초청 오찬, 동영상, 2007-05-03>

나-1. 청와대 관람을 신청하면 **대통령내외분**은 만나뵙기 힘들겠지만 그외에 어떤분을 만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람해서 만날수 있는 분들이요~~~, 관람 게시판, 2006-07-25>

다. 청와대에 올 때 기분 좋게 왔는데 **훈시** 듣고 하면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하위직 공무원 초청 만찬, 대통령 발언록, 2003-12-22>

다-1. [...] 어제의 토론회를 대통령의 일방적 **훈시**로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해임을 바라는 네티즌들, 네티즌 칼럼, 2003-03-12>

(10)의 대통령 전용말은 적어도 두 주체가 널리 함께 쓰는 표현들이다. (10가~가-2)를 보면, 대통령을 높여 부르거나 가리키는 ‘대통령님’이 청와대 공무원, 기자, 일반 국민이 모두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나, 나-1)에서는 ‘대통령 내외분’을 청와대 공무원과 일반인이 썼고, (10다, 다-1)에서는 ‘훈시’를 대통령 자신과 일반인이 썼다. 이러한 표현과 함께 ‘국가원수, 수뇌, 정상, 지도자, 치하,

통수권, 통치권' 등이 공무원과 국민들이 모두 쓰는 대통령 전용말이다.

그런데 다음 (11)의 표현들은 청와대 근무자 등 공무원들만 주로 쓰는 말로 파악되었다.

(11) 공무원만 쓰는 말

가. [...] 합참의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친수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노 대통령은, 역내 안보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페이스 장군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피터 페이스」미 합참의장 서훈 수여 및 접견 결과, 춘추관 브리핑, 2007-08-16>

가.1.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친수** 및 격려다과회 2 <발언록 전문보기, 2003-07-30>

나. 연설 끝났는데 **치하**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제4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발언록 전문보기, 2007-11-09>

나.1.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들을 초청, 만찬을 함께 하고 재외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 노무현대통령 사진실, 2007-02-27>

나.2. [...]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규 농림부장관 신년사, 국정브리핑, 2008-01-01>

(11가)의 '친수'는 상이나 훈장 등을 대통령이 직접 주는 것으로 '전수'(傳授)와 구별하여 쓰이는데, 공무원이 쓴 사례만 보인다. (11나~나.2)의 '치하'(致賀)는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나타내되 주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쓰인다. 대통령 자신이 쓴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대통령의 행위를 이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11나.2)는 장관이 국민들에게 '치하'를 쓴 것이며, 대통령의 말을 흉내 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현에는 '상신, 순시, 치사, 하례' 등이 더 있다. 공무원들만 주로 쓰는 대통령 전용말은

권위적인 뜻이 강하며, 국어 화자들의 일상어와는 거리가 있는 한자어 표현들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거의 쓰지를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일반 국민들만 쓰는 말

가. 대통령 할아버지 환갑 **감축드립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께 ~, 어린이마당, 2006-09-28>

나. 지적하신대로 **나라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 높은 수준의 매너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덕목의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동감 : 그러나 대의에는 기교보다는 정법이 우선...; 네티즌 칼럼, 2003-05-30>

다. 아마도 민주당 정부는 이승만이나 박정희처럼 신문사나 기자들에 대해서 탄압과 금일봉을 풍족하게 **하사하지** 않은 탓일 것이다. <끝내 변할줄 모르는 언론의 기회주의, 열린마당, 2003-12-19>

(12)는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하여 쓴 말이며, 청와대 공무원들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2가)의 ‘감축드리다’는 어린 학생이 쓴 말인데, 역사 드라마에서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한 것이다. 어린이가 일회적으로 쓴 말이지만 대통령에게 왕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눈에 띈다. (12나)의 ‘나라님’도 왕을 가리키는 말로서 국민들이 쓴 보기가 다수 나타났다. (12다)의 ‘하사하다’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까지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많이 썼던 표현이지만 지금은 일반 국민들이 비유적으로 쓰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버린 말을 국민들이 아직도 쓰는 것은 대통령을 왕조 시대의 임금과 같은 지존의 권위에 묶어 두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무의식적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결과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2008년 현재에도 ‘하사하다’를 쓰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언론의 통일되지 못한 언어 사용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판단된다.

2. 맥락에 따른 쓰임

대통령 전용말을 사용하되 어떤 맥락에서 쓴 것인지에 따라 의미와 기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청와대나 정부의 공무원들이 공식적 상황에서 쓴 것인지 비공식적 상황에서 쓴 것인지가 다르고, 언론이나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사용 맥락에 따른 차이가 있다.

(13) 공식적적으로 쓴 말

가. **대통령님**께서 잠시 이산가족이 되셨습니다. 권양숙 여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간담회, 대변인 브리핑, 2007-10-11>

가-1. [...] 본 보고서는 「2+5」 전략 회의시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및 추진계획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2+5」 전략의 추진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5」 전략회의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서, 대통령과 함께 읽는 보고서, 2007-05-16>

가-2.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은 **대통령님**과 여사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건배를 제안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만찬사 전문, 영국 국민방문, 2004-12-02>

가-3. **대통령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 충분히 여론적으로 타당성 자체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론은 바뀌는 것, 중요한 건 대의명분, 헌법개정, 2007-01-17>

가-4. 방금전 **대통령님**의 신년연설을 시청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의 신년연설을 시청하고서?, 네티즌 모니터링단, 2007-01-24>

나. [...] 1층에는 **영부인**의 집무실과 집견실, 무궁화실, 인왕실

이 1층 별채에는 충무실, 세종실이 있으며, 2층에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접견실, 백악실, 집현실이 있습니다. <청와대 누리집/청와대 둘러보기>

- 나-1. 대통령이 탄 차량이 교통신호를 지키려고 멈춰서는가 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직원들과 함께 배식을 기다린다. <‘탈권위’ 전환기, ‘익숙한 것’과의 결별; 청와대 새소식, 2003-05-29>
- 나-2. 어제 그거를 보고 대통령께서—혹시 전에도 한번 언급한 경우가 있었습시다만—**영부인**께서 신문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정부에 확인해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 <여론은 바뀌는 것, 중요한 건 대의명분; 헌법개정, 2007-01-17>
- 나-3. 제가 여사님께 이쪽지를 보내는 이유는 여사님 이 너무 부러워서 이에요. 대통령의**영부인**의 생활은 정말 멋있겠죠?? <권양숙여사님께, 자유롭게 글쓰기, 2007-11-02>
- 나-4. 한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같은 시각에 국왕 사저에서 열린 알 샤알란(Al Shaalan) 왕비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노무현 대통령, 압둘라 국왕 주최 만찬 참석; 춘추관브리핑, 2007-03-25>

(13가, 가-1)에서 ‘대통령님’은 청와대 공무원이 입말 및 글말에서 공식적으로 쓴 것이다. 곧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소식 보고에서 ‘대통령님’으로 말하였고,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표현을 썼다. 대통령 자신도 전직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대통령을 가리킬 때 ‘대통령님’을 공식적으로 쓴다.²⁰⁾ 이전의 ‘대통령 각하’를 대신하는 ‘대통령님’의 공식적 사용으로 (13가-2~4)와 같이 다른 나라의 국왕, 언론 종사자, 일반 국민도 ‘대통령’이라 하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의식적으로 쓰게 된다. 이 표현은 ‘각하’가 너무 권위적이므로 대신 써 달라고 김대중 대

20) 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설문 등에서 ‘대통령 각하’를 ‘대통령님’보다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령이 요구하여 시작된 것인데, ‘대통령 각하’에 못지않게 권위적인 표현으로 들리기도 한다. 특히 같은 공간에 있는 대통령에게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공무원이 기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쓰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²¹⁾

(13나, 나-1)의 ‘영부인’은 청와대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부인에 대하여 공식적 맥락에서 쓴 표현이다. (13나)는 누리집에 올린 청와대 안내글이며, (13나-1)은 청와대 소식을 전하는 게시글이다. ‘영부인’을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이러한 언어 사용은 (13나-2, 3)의 글에서 보듯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13나-2)는 간담회에서 조선일보 국장이 말한 것이며, (13나-3)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게시판에 올린 편지글로서 대통령 부인을 ‘여사님’과 ‘영부인’으로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여전히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으로 일컫는 것은 대통령의 아들과 딸을 ‘영식’과 ‘영애’라고 하지 않는 현재의 언어 사용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영부인’을 쓰는 경우보다는 (13나-4)처럼 “대통령 부인”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²²⁾ 누리집 안내글의 보기를 제외하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후반에는 이 표현을 집중적으로 씌으로써 ‘영부인’이 공식적으로는 사라지는 모습이다.

21)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권위적이거나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뜻에서 대통령을 제3자로 가리킬 때는 ‘님’을 붙이지 않고, 대통령이 있는 현장에서 대통령을 부를 때만 ‘님’을 붙이기로 했다고 한다(「이명박 대통령-김윤옥 여사’로 호칭 통일」, 『연합뉴스』, 2008. 2. 29).

22)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대통령 부인’을 쓰는 한편 청와대의 모든 보고용 서류에서 ‘여사님’ 대신 ‘여사’를 쓰기로 하였다(앞의 기사 참조).

(14) 비유적으로 쓴 말

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왕**이나 일반 국민이나 가진 권리가 뭐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시험선수’ 만 들어야하나, 청와대 새소식, 2007-04-08>

가-1. 대통령은 한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를 초월한 국가의 영도자이고 **제왕**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왜 헌법소원을 제기했나, 선거법과 대통령의 정치중립, 2007-11-01>

나. **봉황**은아무나되나요 대통령님!!절치부심하셔서 원위치로돌아오세요 <게시글 “[펌] 한국의 위기: 노 대통령 임기 5년, 대통령 탄핵으로 잃어버린 5년 될지도”에 대한 댓글, 네티즌 칼럼, 2004-03-15>

다. 바로 우리의 인식 안에서 대통령은 **태양**이어야 했고, 정치인은 윗사람이었다. <해바라기에 있어서 태양은 무슨 의미인가?, 네티즌 칼럼, 2003-11-13>

라. 투명한 청와대를 만들고 있는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 자신이다.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정부가 살아있는 정부다, 국정일기, 2004-07-29>

라-1. [...] 저는 노무현 후보 당선 **1등 공신**인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 전적으로 틀렸다가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무현은 ‘쫄잔한 인간’인가?, 네티즌 칼럼, 2003-10-01>

(14)의 표현들은 모두 왕조 시대에서부터 쓰이던 것으로서 왕을 가리키거나 왕과 직접 관련된 인물을 가리킨다. ‘제왕’은 왕이고, ‘봉황’도 왕의 상징이며, ‘일등공신’은 왕을 위해 공을 크게 세운 신하이다. (14가)의 ‘제왕’은 대통령이 쓴 것이며, (14가-1)의 그것은 청와대 공무원이 쓴 것이다. (14나, 다)의 ‘봉황’과 ‘태양’은 일반 국민이 썼다. (14라)의 ‘일등공신’은 청와대 공무원이, (14라-1)의 그것은 일반 국민이 썼다. (14다)의 누리꾼이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을 태양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임금과 태양, 대통령과 태양이 동일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가 쓴 것인지와 관계없이 왕조 시대에 왕과 관련되어 쓰이던 이런 표현들은 현재의 대통령제에서는 대부분 비유적으로 쓰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쓰이더라도 왕에게 실렸던 힘과 권위가 심리적으로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 이 점에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통령 전용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보는 것이다.

(15) 비판적 맥락에서 쓴 말

가. 밀실, **측근**, **가신** 등의 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비공식라인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4년평가와 선진한국 전략, 정책자료, 2007-03-09>

가-1. 그래서 검찰도 제 **측근**을 임명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가장 신망 있다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언론특권 해체 없인 민주주의 발전 못 이뤄”, 취재관행개선, 2007-08-31>

가-2. [...] 그렇다면 이번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당선축하금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면 그것을 참여정부의 당선축하금으로 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법안’ 관련 기자회견, 발언록 전문보기, 2007-11-27>

가-3. 측근 중의 **측근**이라던 자도 등 돌리고 있다 한다. <노무현 예수 만들기, 네티즌 칼럼, 2007-02-28>

나. 우선, 대통령을 국가 **영도자**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유신시대가 그런 경우입니다. 대통령은 한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를 초월한 국가의 **영도자**이고 제왕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왜 헌법소원을 제기했나, 미디어 다시보기, 2007-11-01>

나-1. [...] 이런 자를 구국의 영웅이고 위대한 **영도자**라고 모셨던 그 줄개들이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이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켜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 헌법재판소에

서 대통령의 얼굴에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있습니다. <4월 15일 마지막 한방은 20대들의 몫, 네티즌 칼럼, 2004-04-10>

다. 보스의 **낙점** 대신 당원과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보와 보스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17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 대통령 연설문, 2004-06-07>

다1. 정치적인 인물보다는 국민에게 발로 행동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분이면 흡족할 것이다. 정말 좋은 총리가 **낙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혁성과 실용성의 양날개의 총리론, 네티즌 모니터링단, 2004-06-08>

‘측근, 영도자, 낙점’은 본래의 의미 기능으로 쓴 것이 아니라 관련 행위나 관행을 비판하면서 쓴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 전용말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공식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것이다. 그렇지만 (15가-1~가-3)처럼 대통령 자신이나, 기자,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의) 측근’을 정상적인 뜻에서 쓰고 있다. (15나, 나-1)에서는 ‘영도자’가 과거 시점의 문제적인 표현으로 언급되었고, (15다)의 ‘낙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15다-1)에서는 일반 국민이 본래의 뜻으로 ‘낙점’을 쓰기도 하였다. 왕조 시대의 언어적 유물이 비판적 맥락에서 자주 쓰임으로써 대통령 전용말에서 점차 멀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시대에 따른 쓰임

대통령 전용말의 쓰임은 시대에 따른 변화도 보여 준다. 특히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재임하던 권위주의 시대와 문민 출신의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시대에 따른 쓰임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현

대사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가 강했다고 평가되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와 대통령의 권위가 가장 약한 시기로 평가되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를 중심으로 그 쓰임을 살펴본다.

(16) 노무현 대통령 때 공식적으로 쓰지 않은 말

가. 박정희대통령과 **영식영애** 그리고 육연수국회문공위원장 (육여사의 오빠) 장덕진농수산부차관(조카사위) 및 기타 가족들이 육여사의 운명을 지켜왔다. <육영수여사 서거, 서울신문, 1974-08-16>

가-1. 전두환-전재국, 노태우-노소영, 김영삼-김현철, 김대중-김홍걸-김홍업 하는 식으로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과 딸**, 사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불행한 기억들이다. <노무현의 핵심공약을 기억하십니까, 정치행태 비판, 2007-03-25>

가-2. 노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결혼식 역시 검소함을 추구하는 노 대통령 부부의 성격을 나타냈다. <중국 월간지 [세계여성] 4월호 권양숙—한국 대통령 부인의 진실한 모습, 새소식, 2003-03-26>

가-3. 노대통령은 추석에는 **아들딸** 내외 및 경남 김해 진영에서 역(逆)귀성한 친형 건평씨 내외 등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차례를 지냈다. <한가위 잊은 노대통령, 경향신문, 2003-09-13>

가-4.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DJ의 세 **아들**이 모두 감옥 갈 위기에 처하고, 이로 인한 민심 이반은 극에 달했다. <DJ와 노무현, 10년의 역사를 계승할 초인을 기다리며..., 네티즌 칼럼, 2007-01-17>

나. 새마을 뉴스: 「박대통령각하 내외분 새마을 지도자에 기념품 **하사**」 <도시문제, 7권 7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2>

나-1. 관권선거란 10년 전 한나라당이 했던 바와 같이 국세청이나 안기부를 동원하여 선거 자금을 만들고, 대통령이 자금을 모아 당에 **내려 보내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후보를 흑색선전하고, 공무원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시킨
지난 시대의 부끄러운 초상을 말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인지, ‘도약의 10년’인지 토론해보자, 현안 브리핑, 2007
-11-30>

나-2. 청와대에서 단 한 푼도 **내려보내 주지** 못하는 데 후원금
모금해서 해야 하는데, 돈이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뿌릴 수
는 있겠는가? <방송인터뷰를 보고, 네티즌 모니터링단, 2004
-02-25>

나-3. 아마도 민주당 정부는 이승만이나 박정희처럼 신문사나 기
자들에 대해서 탄압과 금일봉을 풍족하게 **하사하지** 않은 탓
일 것이다. <왜 자칭 원로들은 저리 분기탱천 할까, 네티즌
칼럼, 2004-09-09>

나-4. 대통령도 김장수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지침을 **하달했다**.
<NLL에 대한 어떠한 양보 없이 우리의 입장 견지했다, 현안
브리핑, 2007-11-30>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일상적으로 많이 쓰였으나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공식적 맥락에서 쓰이지 않은 말들이 다수 있는데 대표
적 보기가 대통령의 아들딸을 가리키는 ‘영식’과 ‘영애’이다. (16
가)와 같이 1970년대 정부와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을 별 문제없이
썼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16가-1~3)처럼 청와대 공무원들이나
언론은 ‘영식’ 대신 ‘(대통령의) 아들’을, ‘영애’ 대신 ‘(대통령의)
딸’을 쓴다. 대통령의 2세 또는 현대의 왕족이라는 언어적 특별 대
우가 더 이상 없어진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16가-4)와 같이 ‘아
들’을 편하게 쓰고 있다.

(16나)의 보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사회적으로 ‘하사’를 자연스
럽게 썼음을 보여 준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물품
을 줄 때 아랫사람에게 준다는 뜻에서 이 말을 써 왔다. (16나-1)
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공무원들이 ‘하사’를 쓸 수 있

는 맥락에서 ‘내려 보내다’를 쓰고 있다.²³⁾ 국민들 가운데서도 ‘내려 보내다’를 쓰기도 하였으며, (16나-3)과 같이 ‘하사하다’를 쓴 사람도 보인다. (16나-4)에서는 ‘하사’와 대응될 수 있는 ‘하달’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사’를 더 이상 공식적으로 쓰지 않음이 사실이지만 ‘하달’을 쓴 것을 보면 그러한 노력이 완전하지 않다.

(17) 노무현 대통령 때 쓰지 않기로 한 말

가. 법 위에 **군림하던** 대통령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심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로 보인다.
<대한민국 미래위한 대통령 구상, 청와대 새소식, 2005-09-01>

가-1.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위엄 있고 힘 있는 대통령 등 ‘통치권자’로서의 리더십과 지도자상은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됐다. <이제 ‘낡은 대통령관’을 바꾸자, 청와대 새소식, 2004-02-24>

가-2. 그대들이 말하는 신의는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기득권으로 **군림하여** 파이를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총선은 부패와 반부패의 대결이다. 네티즌 모니터랑단, 2004-02-03>

나. 이 시스템은 ‘소통령’이나 ‘실세’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검증도 안된 인물을 **낙점하던** 과거 정부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시스템인사는 건재하다, 참여정부 인사검증, 2007-06-05>

나-1. [...] 지지한 소책자를 발간하였다고 하여 **낙점할** 수도 없고, **낙점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과연 조선일보 기자의 ‘예상’은 무엇인가, 미디어 다시보기, 2005-12-05>

나-2. [...] 과거처럼 인사권자의 **낙점**만으로 인사를 결정되던 권

23) ‘내려 보내다’도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성이 명시된 점에서 ‘하사’를 직역한 느낌이 있으며, 따라서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 위주의적 구시대와 2005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연정의 의미와 과제, 네티즌 칼럼, 2005-07-29>
- 다. 아직도 ‘대권’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에서 ‘대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편지/기고, 2006-12-04>
- 다-1. 중임금지는 **대권**경쟁을 조기에 가열시켜 현직 대통령이 심각한 레임덕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적 수행을 현저히 어렵게 만듭니다. <“국정과 민생 위해 원포인트 개헌 반드시 필요하다”, 특집-왜 지금 개헌인가, 2007-01-16>
- 다-2. 장담하건대 다음 정권 누가 **대권**을 잡든 경제가 좋아지면 그건 참여정부 노력의 결실이다. <철없는 임종석 의원을 위한 친절한 과외교습, 네티즌 칼럼, 2007-01-20>

노무현 대통령은 각종 연설에서 ‘군림, 낙점, 대권’ 등 대통령의 권위를 과도하게 드러낸 말들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실제로도 본래의 기능으로 쓰는 일이 적었다.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써 오던 말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없는바 대통령 자신이나 청와대 공무원들은 비판적 맥락에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말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리키는 행위나 관행, 태도를 더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본 ‘영식, 영애, 하사’의 경우 말 자체가 버려야 할 대상인 점에서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만 ‘군림’이나 ‘낙점’과 같은 말은 관련 행위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쉽게 없어지기 어렵다. 더욱이 ‘대권’의 경우 대통령이 되었을 때보다는 되기 이전 상황에서 쓰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언과 별개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쓰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버려야 할 부정적 표현으로 평가된 이러한 대통령 전용말의 생명력은 관련 행위나 태도의 변화 여부에 그 미래가 달린 셈이다.

IV. 대통령 전용말의 기능과 문제점

대통령 전용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왕조 시대의 왕과 같은 위치에 두는 역할을 한다. 전체 국민들의 위계질서 체계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고, 임기가 끝나면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점을 빼고는 힘과 지위 면에서 왕과 다를 바 없다. 왕에 대하여 그랬듯이 대통령에게도 권위에 걸맞게 언어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다. 대통령 전용말은 바로 일반인과 다른 존재로서의 대통령을 위한 차별적 언어 장치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대통령 전용말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은 ‘대통령’(大統領)이란 말 자체이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근대 시기에 영어를 번역하면서 만든 새말로서 우리말에 들어오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통령’(統領)이라는 말이 ‘무문(武門)의 통령’, ‘사무라이 무사단의 통령’ 등 무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의 군사적 용어로 사용되었다.²⁴⁾ 로마 시대의 ‘집정관’(consul)을 ‘통령’이라고 번역하고,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통령’에 취임하고 ‘통령 정부’를 구성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프레지던트’(president)를 번역하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통령’이라는 말에 접두사 ‘대’(大)를 붙여 만든 ‘대통령’은 1860년대 초부터 일본 문헌에서 많이 쓰였다. 전제군주 시대에 왕과 동급의 인물을 가리키기 위하여 만든 표현인 점에서 강한 힘을 드러내는 언어 요소가 동원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다녀온 이현영이 1881년에 쓴 『일사집략』이라는 보고서부터이다. 일본 신문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

24)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도 무관 벼슬의 이름으로 이 말을 썼다. “조선 시대에, 조운선 10척을 거느리던 무관 벼슬”(표준국어대사전)을 ‘통령’이라고 하였다.

오는 기사를 보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884년 『승정원일기』에서도 고종이 미국의 국가원수를 ‘대통령’으로 호칭했다는 기록이 보이며,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래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²⁵⁾

1945년 광복 이후 정치 체제가 민주공화제로 바뀌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계질서 의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위계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려는 생각도 왕조 시대와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표현을 찾지 않았고 ‘대통령’을 21세기에도 그대로 쓰고 있다.²⁶⁾ 나아가 ‘대통령’(大統領) 자체가 강한 힘과 완벽한 권위를 표현하는 말로서, 한 나라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가리킴말임에도 불구하고 ‘각하’까지 덧붙이는 것은 권위주의 의식의 결정판이다.²⁷⁾ 김대중 대통령이 ‘대

25) 송민(2000:107~113) 및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 소준섭, 뉴스메이커, 2005. 11. 11 기사 참조.

26) 1912년부터 ‘중화민국’ 임시 대통령의 뜻으로 ‘대총통’(大總統)을 잠시 썼지만 1947년 이후 대만에서는 국가원수로 ‘총통’을 쓰고 있다. 실제 권력의 크기를 떠나서 언어적 구성 면에서는 ‘대통령’보다 ‘총통’의 권위가 약해 보인다. 현재 중국의 국가원수는 ‘국가주석’이며, 중국이나 대만에서 한국 대통령을 가리킬 때는 ‘총통’이라고 한다.

27)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에 대한 비판은 많이 있었지만 ‘대통령’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언론을 통해 많이 나왔다. 최근의 한 주장으로는 「대통령이란 명칭부터 바꾸자」, 소병희, 한겨레, 2003. 03. 31를 들 수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프레지던트’인데 이 명칭은 동사 ‘프리자이드’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 주된 의미는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를 분다는 것이다. 프레지던트라는 명칭은 회사 사장, 학회 회장, 사친회 회장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직책에도 사용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란 명칭에 국민 위에 군림하여 통치할 수령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민중에 의해 선출된 한낱 ‘대표’로서 민중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였다. 소준섭(2005)에서도 “군사적 성격과 봉건적인 일본문화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어쩌면 대통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

통령 각하'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 하여 '대통령님'을 쓰도록 주문한 이후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이 말은 온 사회에서 활발하게 쓰였다. 그렇지만 '대통령님'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통령 각하'에 못지않게 권위적인 표현이 되어 버렸다. 대통령을 부르거나 직접 가리킬 때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청와대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말하면서 제3자로서의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대통령님'으로 말해 온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느껴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고서나 발표문 등에서는 '님'을 빼고 '대통령'만으로 가리키기로 하였는데,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한 걸음 진전된 조치이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된 이후 대통령의 권위가 약화되고, 이에 맞추어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대통령 전용말의 사용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사'라는 표현은 이미 오래 전에 앞정권에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였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들어 '가신, 군림, 권좌, 낙점, 내정, 대권, 독대, 측근'과 같은 말도 폐기 대상으로 지목됨으로써 공식적 상황에서의 쓰임이 줄어들고 있다. 구시대의 퇴행적 정치 행태를 가리키는 부정적 표현이라고 인식한 자기반성의 결과이다. 물론 이런 말들 자체보다는 그것과 관련된 행위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지만 행위가 약화되거나 사라지면 관련 표현도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노력은 언어 사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청와대 공무원들은 여전히 대통령의 절대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무의식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의 표상으로 '봉황' 휘장이 계속 쓰이고 있고, 2008년 2월부터 쓰고 있는 새로운 '국새'에도 봉황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상신, 승인, 재가,

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 '빛'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치하, 친수, 하달, 하례'와 같은 수직적 지위 관계를 강조하는 왕조 시대의 낡은 표현들이 청와대 안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인다. 국어 대사전에서 '모심' 또는 '도움'으로 바꾸어 쓰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도 청와대에서는 '보필'을 쓴다. 국무총리나 장관,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부'를 쓰면서도 대통령에게만 '내외(분)'을 차별적으로 쓰는 것은 대통령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유일한 존재로 떠받드는 언어 전략의 한 표출인 셈이다. 또한 쓰지 않겠다고 밝힌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이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다. 외국 국가원수나 총독, 주지사, 시장 등의 인물들에게 격에 따라 '각하, 전하, 폐하'를 구별하여 지속적으로 쓴다. 권위적이라서 버렸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전용말로 쓰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대통령 전용 단상, 대통령 전용 별장, 대통령 전용 병원, 대통령 전용 산책로, 대통령 전용 열람실, 대통령 전용 열차, 대통령 전용 이발사, 대통령 전용 전망대, 대통령 전용기, 대통령 전용차, 대통령 전용헬기'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거기에다 다양한 '대통령 전용 말'까지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다. 경호상의 이유로 전용 장비나 시설을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 사회에서 언어까지 특별대우를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며, 국민들로부터 널리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청와대의 모든 서류와 물품에 임금을 상징하던 봉황 무늬가 찍혀 있고, 임금의 용상 배경을 장식하던 '일월오악도'가 청와대 본관에 위엄 있게 내걸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개혁과 관련된 몇 개의 표현을 버리겠다고 하여 대통령의 권위와 청와대의 권위주의 관행이 뚜렷하게 약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대통령 권위주의를 없애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다.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으로서,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이 앉은 사무실 벽에는 아직도 황금빛 무궁화 그림 위에 두 마리의 휘황찬란한 봉황이 날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권위 의식을 배제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봉황 문양을 쓰는 대신 ‘태평고’를 쓰기로 하였으나 취임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법령에 봉황 휘장이 규정돼 있고, 그동안 사용하면서 굳어진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²⁸⁾고 밝혔다. 대통령과 청와대 공무원들이 일하기에는 역시 권위주의에 기대는 것이 편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옛것을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봉황 문양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최종 결정은 권위주의 청산이나 국민을 섬기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언어적 권위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과 관련된 몇 개의 표현을 버리거나(노무현 정부) ‘대통령님’과 ‘여사님’에서 ‘님’을 떼는(이명박 정부)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대통령 전용말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표현을 찾아 체계적으로 고쳐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²⁹⁾ 청와대에서 더 이상 권위주의를 나타내는 대통령 전용말을 쓰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익숙한 말들이 생명력을 갖고 계속 이어지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쓰지 않게 된 표현들을 널리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 예로,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기에 ‘영부인’을 쓴 이후 중·후기에는 ‘대통령 부인’

28) 「미리가본 17대 대통령 취임식」, 『뉴시스』, 2008. 02. 17; 「대통령 취임식 ... ‘섬기는 정부·실용 정부’ 강조」, 『mbn』, 2008. 02. 25; 「청 상징로고 변경 ... 봉황휘장은 계속 사용」, 『동아일보』, 2008. 04. 03 기사 참조.

29)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 청와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사용했던 ‘행정용어’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청 「과거정권 ‘행정용어’ 정비필요」, 『연합뉴스』, 2008. 04. 14). ‘일일상황점검회의, 신지식, 혁신’과 같은 말을 버리겠다는 것인데, 새 정부의 각오와 국정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로 바꾸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것보다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전용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폐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으로 쓰고 있음에도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은 ‘영부인’을 그대로 많이 쓰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 속에 이미 대통령의 부인은 보통의 ‘부인’이 아니라 특별한 ‘영부인’이라는 공식이 깊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하사’를 쓰지는 않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2008년 지금도 쓴다.³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수많은 표현들이 왕조 시대부터 맥이 끊어지지 않은 채 왕에게서 대통령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는 사실을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식해야 한다.³¹⁾ 대통령의 힘과 권위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위임 받은 것임에도 뽑아준 국민들에게 전제군주 시대의 언어를 통하여 외적 위엄을 과시하려는 것은 모순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서도 대통령을 ‘국가원수’이자 ‘통치권자’로, ‘군 통수권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규정도 대통령의 권위를 지나치게 높이는 비민주적인 언어 사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왕의 권위를 살리려던 언어 표현을 국민 주권 시대의 대통령에게 계속 적용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이다. 21세기 새 궁중말 또는 대통령 전용말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은 국가와 국

30)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임충빈 육군총장 등 대장 진급자에게 대장표식의 ‘수치’를 매단 삼정검(三精劍)을 하사했다. 삼정검은 ‘삼정도’에서 작년에 이름이 바뀐 것으로 처음 ‘발’을 단 장군에게 하사된다.” 「대통령이 하사한 ‘삼정검’은」, 『연합뉴스』, 2008. 03. 21. “이명박 대통령은 임충빈 육군참모총장과 정욱근 해군참모총장 등 최근 인사발령을 받은 군 장성들로부터 진급,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을 하사했습니다.” 「장성 진급자 삼정검 받아」, 『MBC』, 2008. 03. 21.

31) 앞의 2장에서 제시한 대통령 전용말이 모두 버려야 할 대상은 아니며, 동일하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예를 들어 ‘격려, 경호, 메시지, 서신’과 같은 말은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공식화된 표현인 점에서 전용말의 보기로 넣은 것인데,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는 일상용어임을 고려할 때 권위주의적이고 거부감이 크게 드는 ‘낙점, 재가, 초치, 하사’ 등과는 처리를 달리 해야 한다.

민의 대표라는 기본적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망각체로서의 부작용이 강하다. 대통령이 되 왕과 같은 절대적 권위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더 존엄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차별 의식을 온 국민들이 내면화하도록 강요한다. 대통령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강해질수록 대통령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 권위를 스스로 가진 듯이 행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국민들 위에서 명령하고 군림하는 전제 군주의 모습을 나타내기 쉽다.

강한 권위를 드러내고 큰 힘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는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뜻을 전하기 어렵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과 열린마당에서 토론하고,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함으로써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진정한 민주 정부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위엄 있게, 삼엄하게 둘러쳐진 청와대의 언어적 권위주의 장막부터 확실하게 걷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위주의 대통령 시대를 벗어나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한 사람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大統領’이 아니라 최소한 ‘代統領’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 대표’ 또는 ‘청와대 대표’, ‘행정부 대표’가 더 적절한 이름일 것이다.

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말이나 대통령에 대한 말을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통령과 관련된 언어적 특별 대우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대통령 전용말의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대통령을 보통 사람과 달리 대우함으로써 생기는 효과와 부작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2장

에서는 대통령 전용말의 목록을 제시하고, ‘사용 시기, 전용성(專用性)의 정도, 사용 방식 및 방향’의 면에서 유형을 분류하였다. 3장에서는 대통령 전용말의 쓰임 실태를 ‘주체, 맥락, 시대’의 세 가지에 따라 살펴 보았으며, 4장에서는 대통령 전용말의 기능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현재의 대통령 전용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대통령 전용말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각종 정치 개혁 과정에서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퇴영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전용말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더 이상 쓰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려는 노력이 나왔는데, 그것은 대통령에게 관행적으로 부여되었던 왕과 비슷한 정도의 힘과 권위를 표면적으로나마 조금은 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듯하다. 이후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 언어적인 면에서도 일부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세를 보여 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와대에서는 왕조 시대에 썼던 다수의 권위적 표현을 계속 씌으로써 대통령과 왕을 언어적·심리적으로 연결시키려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4장에서 적은 것처럼,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들이 뽑아서 이루어진 것이며 자신의 권한도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주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적 권위주의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려는 반성과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몇 가지 표현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대통령 전용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표현을 찾아 바꾸어 쓰려

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서양의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시행해 온 지가 오래 되었지만 의식과 언어의 모습이 여전히 조선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가 주는 장점을 마음껏 누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가 국어사용의 한 구체적인 면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지만 대통령 전용말의 구시대적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힘과 권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 결과 모든 국민들의 삶과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언어적 전환의 발판이 된다면 더욱 좋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국립국어원 엮음,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 서울대출판부, 2006.
 대통령비서실 보고서 품질향상 연구팀, 『대통령 보고서—청와대 비서실의 보고서 작성법』, 위즈덤하우스, 2007.
 박병로, 『장수하는 한국의 대통령들』, 노년시대신문사, 2007.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 1~4』, 박이정(서광학술자료사), 1994~1997.
 법제처 엮음, 『고법전용어집』, 법제처, 197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엮음,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송국진, 『도대체 청와대에선 무슨 일이?』, 네모박스, 2007.
 함성득 엮음,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나남출판, 2000.

2. 논문

- 김용숙, 「궁중어의 아름다움—‘한중록’을 중심으로」, 『한글』 226, 한글학회, 1994, pp.119~145.
- 김중훈, 「궁중어고」, 『국어국문학』 42·43, 국어국문학회, 1969, pp.235~248.
- 박경현, 「대통령 취임사의 국어 표현」, 『텍스트 분석의 실제』, 역락, 2003, pp.395~418.
- 송민, 「‘대통령’의 출현」, 『새국어생활』 10·4, 국립국어원, 2000, pp.107~113.
- 이원표, 「대통령 취임사—수사구조와 담화의 민주화」, 『한국어와 한국사회』(왕한석 엮음), 교문사, 2008/2000, pp.271~312.
- 이정복, 「‘부부’와 ‘내외’의 사회언어학적 분포」, 『한국문화』 2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1, pp.33~53.
- 이정복, 「남북한 정상에 대한 언론의 경어법 사용 분석」, 『국어국문학』 128, 국어국문학회, 2001, pp.29~51.
- 이정복, 「대통령 연설문의 경어법 분석」, 『배달말』 33, 배달말학회, 2003, pp.213~237.
- 이정복, 「방송언어의 가리킴말에 나타난 ‘힘’과 ‘거리」,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언어학회, 1997, pp.87~124.
- 이정복, 「외래어 순화 정책의 방향—정부 활동을 중심으로」, 『어문학』 99, 한국어문학회, 2008, pp.27~66.
- 이태숙, 「언론의 언어사용 신중을 기하라—대통령과 관련하여 오용된 말들을 중심으로」, 『저널리즘비평』 7, 한국언론학회, 1992, pp.59~62.
- 황경환, 「궁중용어」,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1963, pp.269~293.

3. 단행본

- 김형철,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 출판부, 1997.

박영섭, 『국어한자어휘론』, 박이정, 1995.

신중진, 『개화기국어의 명사 어휘 연구』, 태학사, 2007.

최경옥, 『한국개화기 근대외래한자어의 수용연구』, 제이앤씨, 2003.

The Red-carpet Treatment for the President in the Use of Korean

Lee, Jeong-B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we clarify the red-carpet treatment for the Korean President in the use of Korean language by analyzing the President's speech and the expressions of others to him from the sociolinguistic perspective. We wish to examine the usages of exclusive expressions for the President closely, and find whether there are some effects or side effects as a result of the respectful treating the President unlike ordinary peoples. In chapter 2, we suggest the repertoire of expressions for President exclusive, and then we classify the types of them concretely according to the period, degree of exclusive, method, and direction of using them. The concrete usages of exclusive expressions for the President are investigated in chapter 3, according to three viewpoints of the subject, context, and period of using them. In chapter 4, the function and problem of the expressions for President exclusive are examined synthetically. We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em from a critical viewpoint. Through this process, we quoted our views about which the expressions for the President should change to what direction from now on.

Key words : President, President Roh Moo-hyun, red-carpet treatment in language use, exclusive expressions for President, royal court language

이정복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 소: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전화번호: 053-850-6017(직장), 018-210-3347(휴대전화)

전자우편: leejb@daegu.ac.kr

이 논문은	2008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8년 5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6월 30일	간행함